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기본문제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

봉건시대, 식민지시대, 군사정권시대를 거치면서, 과거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지배체는 대중적인 열망을 억눌러왔다. 비록 억압의 정도가 나라마다 다르지만, 억압적인 체제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아시아의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성공적인 투쟁을 이룬 점에서 유일하다.

한국인들은 들은 것을 크게 말하고, 지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말할 것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아시아 다른 지역의 민중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말하기위해서, 아시아의 다른 곳에서 민중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깊이를 한국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시아는 무시무시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이것들은 매우 커다란 위험이다. 만약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무엇인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1970년대에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심각한 재난을 맞을 것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민중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크기와 형태에 관해서 표현할 말이 사실 부족할 뿐이다.

오늘, 나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 상황과 한국과의 관련성을 말하려한다. 다음의 것들을 생각해 보라. 네팔은 유례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버마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약 30년 전에 일어났던 파괴로부터 극복되지 않았고 인권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법질서가 무너짐으로써 좌절, 퇴행을 경험하고 있다. 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고문은 뿌리 깊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개혁을 위한 어렵고 불확실한 과정 상에 있다. 동시에

미국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점점 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이슈에 아시아 인권위원회(AHRC)는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익숙하다. 그래서 나는 순서대로 각각을 이야기하겠다. 우선 북한이 아시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열악한 인권상황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한국인들이 거기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논의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남겨두겠다. 그래서 나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관해서 집중을 하려 한다.

네팔

네팔에 대해서 나는 조금 자세하게 말하고 싶다. 이번 주에 1,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2월에 집권한 왕의 일인 지배의 종식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왔다. 그만큼 수의 변호사들이 시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그렇지만 네팔에서 정부와 사법부의 시스템이 이미 무너졌다. 그래서 아마도 변호사들은 그들에게 거리 외에는 그들에게 남겨진 곳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확실하게 그들은 법정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법정은 군부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다. 사실, 사법부는 너무나 부패되어서 네팔의 대법원장이 독재권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강요되었을 정도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패했다.

네팔에서의 지난 2월 왕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가공할 만한 억압이 이어지고 있다. 불량배들을 이용해서 방화, 약탈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지도적인 반체제인사가 구속되었는데 국내와 해외에서의 심각한 압력이 있자 일부를 최근에야 석방시켰다. 대부분 출판물은 철저한 검열제도의 통제하에 있다. 체제에 대한 모든 반대자 또는 일부 반대자들에 대한 감시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최근 몇 주에는 군인과 경찰이 인권조직과 다른 조직을 방문하여 정부에 반대하는 정보의 출처와 캠페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색했다.

왕은 또 최근에 네팔의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산시켰다. 이것은 네팔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이었다. 인권위원회는 최근에 1,000명 이상의 실종자를 입증했다. 실제의 숫자는 그 이상이다. 위원회는 무고한 시민에 대한 고문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왕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되었다. 실제적으로는 위원들은 검증과 균형을 통하여 의회과정을 통하여 임명되어야 했다. 왕은 이러한 조건을 무시했다. 새로운 위원회는 그의 통제하에 놓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군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역시 의미한다. 인권위원회에 신청되는 이의서들은 직접적으로 군부의 관리에게 전달될 것이다. 희생자와 그들의 변호사들의 생명은 위협에 빠질 것이다. 인권조직들은 매우 심각한 위협에 빠질 것이다. 초기에 접수된 이의서의 기록들은 역시 군부로 보내질 수도 있다.

왕은 증가하는 마오주의자들의 봉기를 처리할 힘을 가진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해결에 대한 어떤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 사실, 왕이 권력을 장악한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지도자나 정당 아무도 협상에 대한 역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과정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이 지금은 없다. 협상의 당사자인 둘은 한쪽은 절대 권력인 왕이고 다른 한 쪽은 60%가 넘는 국토의 권력을 대표하는 마오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협상결과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

권력 인수 이후에, 왕은 90일 안에 정부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네팔에 민주적인 과정을 재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유엔기구뿐만 아니라 인도와 미국을 포함한 외부의 관련국가와도 맺어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속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반대의 경향이 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지금 왕조 통제하에 있는 군부질서하에 있다. 위약한 민주주의 제도는 절대적인 왕조가 폐기된 15년 전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뿌리째 뽑힌 것이다. 민주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지금 생존만을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은 살아남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도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민주주의 제도는 파괴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변호사들조차 거리로 나오게 하는 이유이다.

아무도 네팔이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면 될수록 재앙이 더 커질 것이다. 극도의 빈곤, 뿌리 깊은 차별, 인신매매 등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는 금방 붕괴될 듯하다. 만약 모두 실패한다면, 극단적인 가치하락과 기아가 이어질 것이다.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을 찾는 데 시간이 많지 않다. 올해, 유엔 인권위원회의 61회 회기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에 의해서 정부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이에 네팔에 특별 사절단을 구성하기 위한 협정을 맺었다. 이 사절단은 일을 시작했고, 이 목적을 위해서 돈을 받았다. 50여명의 해외 스태프로 사절단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마도 이것은 극단적인 재난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

유엔 인권사절단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러한 단계에 우리는 네팔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시아의 토론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인은 네팔의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위해서 더 큰 헌신을 보임으로써 주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버마

나는 버마와 캄보디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겠다. 버마가 한국에서 관심의 대상이 - 그것도 정당하게 -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기쁘다. 군부 체제는 국가를 개혁하려

는 진정한 의도가 없는 듯하다. 사실상 민주주의 진행과정이 전보다 지금 더 심하게 억압되어 있다, 가난은 확산되고 있다. 기근과 억압은 버마를 몇 년 동안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잘 입증되고 있다. 즉 버마사람들 수백만 명이 저임과 위험한 노동을 찾아서 태국과 더 먼 지역으로 떠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불행하게도 버마는 아직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다. 버마의 실제적인 상황을 더 날카롭게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한국과 같은 민주사회의 또 다른 의무이다. 그런데 한국은 특히나 경제적인 이해가 관련이 있는 곳이다. 버마에 관한 국제적인 조직은 특히나 약하다. 왜냐하면 거의 모두가 유럽과 북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버마에 변화가 있다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상황도 역시 여전히 어둡다. 1993년 5월 선거에서 절정을 이룬 유엔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강력하고 부유한 전 군부 지도자의 통제하에 있고 민중들은 빈곤 속에서 겨우 지탱하고 있다. 효과적인 민주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 야당 지도자들은 망명 중이거나 그들의 동료 일부는 재판 중에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완전하게 행정부의 수하에 있다. 제도적인 발전이 지난 12년 동안 없었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부패한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지도자들은 캄보디아의 제도적인 발전을 파괴시켰다.

캄보디아는 잘못 지도된 정치혁명과 초강력한 정치,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일단 마비상태에 빠지면, 충분하고 지속적인 국제적인 지원이 없이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방법으로 일본과 독일은 국제질서로 재통합되고 재건설되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세계질서하에서 지원은 제한적, 산발적, 단기적이다. 이것은 진정한 지원이 아니다. 다른 아시아국가와 그 국민들은 특별한 의무가 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끝도 없는 곤궁에 지속적인 국제적 관심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의무이다.

스리랑카

아시아의 경찰, 검찰, 사법권과 같이 법적 질서를 담당하는 기구들의 붕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고 싶다. 특별히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와 관련된다.

파괴된 법질서의 한 결과는 국가가 내부적인 분쟁을 일관성 있는 방법, 태도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리랑카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1960년대의 스리랑카는 상대적으로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많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제도가 작

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초기에 전국의 몇몇 지역에서 극한적인 폭력이 진행된 기간이 있었다. 1971년에 작은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는 적어도 10,000명의 젊은 이들을 죽였다. 그들 중 대부분은 싱할라 민족이었다. 이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1987년부터 90년까지 남부지역에서 보안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적어도 30,000명의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것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실종은 JVP라고 불리는 반란조직에 대한 대응으로 일어난 것이다. JVP는 무자비한 살인에 연관된 조직이다. 북부와 동부에서는 군이 몇 년 동안타밀 군에 의한 무장봉기를 분쇄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LTTE(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에 의해 밀려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군의 맹공격은 시골 마을을 파괴하고 수천의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것은 시골에서의 민주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정지상태에 빠뜨렸다. 휴전이 3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의 생활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민주적 사법기구들이 제멋대로 무시되어지면서 정부는 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없다. 폭력의 강도가 더욱 거세어지고 발생률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살인이 사소한 것이 되고 강도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중산층의 대변자들은 단지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법 외적인 살해를 용인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언론인과 인권 옹호론자들은 살해위협을 받고 있으며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LTTE와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남부의 사람들은 살인을 당한다. 북부와 동부에서는 정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살인을 당한다. 사회생활은 폭력에 의해서 마비되고 그것의 파급 효과가 관련되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까지 흘러가고 있다. 예를 들어 죽음 또는 심각한 상해를 일으키는 의료적인 무관심과 과실은 더 빈번하며, 태만한 의사들은 멋모르는 희생자들을 비인간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대한다. 그러한 일들은 사회적 붕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적절하게 논의되지도 않는다.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상황은 스리랑카와 어떤 점에서는 비슷하다. 사람들은 법외의 살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한 살인은 경찰의 합법적인 행위를 가장하여 이루어진다. 언론인과 야당 의원들이 종종 대상이 된다. 경찰은 완전히 부패하고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구속된 사람들 중 거의 70%가 가난하고 무고한 사람들이라고 가까이 지켜 본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것들의 많은 경우는 경찰은 범 죄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범 죄자들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안군의 부패나 잘못을 조사할 독립적인 조직이 없다. 권위적인 사법조직 앞에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인권의 상황은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문

지역의 대부분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 주요한 문제는 고문의 광범위한 사용이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경찰조사에서 고문의 사용이 관례화되어 있다. 사실상, 고문은 형사적 범행에 대한 조사에서 사용되는 가장 공통적인 형태이다. 정부와 경찰은 고문을 합법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것에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는다. 비록 고문을 금지하는 법이 있고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약속을 천명하였지만 이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다. 극단적인 고문은 종종 죽음을 가져온다. 고문을 이기고 살아남은 죄없는 희생자들은 강요된 자백에 의해서 감옥에 보내진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경찰은 고문을 이용하여 통제가 불가능한 절대권력을 누린다. 이러한 권위에 감히 도전하려는 정부와 정당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그것을 이용한다. 확산된 폭력과 힘의 남용은 선거와 정치활동까지 전염시키고 있다.

고문은 민주주의자와 인권옹호론자들이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이슈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문의 문제가 중심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고문과 그에 수반된 학대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과 그들의 사회의 일상적인 사건에 참가하는 것에 관해서 갖는 공포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고문의 사용에 관한 문제에 휩쓸린 국가가 하나 있으니 바로 미국이다. 미국과 몇몇 서구 동맹들이 아시아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대중적인 열망에 점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미국은 고문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를 포함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을 계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권 조항은 수세기 동안의 각국의 노력에 의해서 발전된 것이다. 미국은 국제법을 무력화하고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부주의하게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세계와는 동떨어져서(감시받지 않는) 자기만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한다. 고위 미국 관리들은 인권조적을 조준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미국의 악화되는 인권관행을 고발한 보고서를 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다. 결국 부통령이 앰네스티를 알 카에다의 선동대라고 부를 정도이다. 그러한 언어는 수십 년 동안 인권조적이 세계의 군사 독재로부터 그리고 저열한 독재 군주로부터 겪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이 이제 그와 똑같은 행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최대한 좋게 말해봐야) 슬픈 고발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더 큰 성장에 막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한 민주적 가치를 예전에 주창한 나라들이 지금 실제로 그것들을 비웃기 때문에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들이 조소를 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결과들은 아시아의 인권옹호론자와 민주주의 주창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인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여, 미국과 그 동맹들의 점점 증가하는 파괴적인 역할은 심각하게 재평가되어야 하고 반증되어야 한다.

끝마치기 전에, 최근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에서 공산주의 이후 시대로 이전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일정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몇몇 지역에서 억압적인 행동을 절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법적인 개정을 위한 개혁 활동이 있었다. 그렇지만 오래된 관료적인 관행과 정당의 통제는 대중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제도의 발전에 주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국가를 그들의 경찰, 검찰, 사법권,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비슷한 문제를 본다. 많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발견된 그것들에 관계된 비슷한 문제를 본다. 아마도 이것들을 공통의 문제로 취급하고 함께 문제를 찾아야 할 시간이 왔다.

어떤 교훈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아시아에 있는 우리는 우리 문제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세계의 침묵을 깨길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침묵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에 의해서 내가 의미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의 모임과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그 침묵을 지속적으로 깨뜨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사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아시아에서의 인권이슈에 관한 일상적인 토론을 만들 높은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같은 것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단지 한 가지 길이 있다 : 크게 그리고 자주 말하라.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언젠가 전체 아시아가 한국이 지금 경험하는 것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Basic Problems 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sia

Basil Fernando

Asia Human Rights Commission, Executive Director

Korea's history is one of regimes--feudal, colonial and military regimes--all of which have at one time or another repressed popular aspirations. In its experience of repressive regimes, Korea has much in common with other countries in Asia, although the severity of repression has varied from one country to the next. However, Korea is unique among Asian countries in having witnessed a successful struggle for genuine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Korean people have learned to talk loud and to ensure that they are heard. They have much to say that can be learnt by people in other parts of Asia. But to speak and be heard in other countries it is necessary for Koreans to understand the depth of the problems faced by people in those places. At the moment, Asia is a place of looming dangers. These are very grave dangers. If something effective is not done to address them we may soon again witness great catastrophes of the sort that occurred in Cambodia during the 1970s. This is no exaggeration. In fact, we lack the words to describe the size and type of the dangers that people are facing now.

Today I will discuss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throughout Asia and its relevance for

Korea. Consider the following. Nepal is in a deep crisis of incomparable proportions. Burma continues to languish. Cambodia has not recovered from the damage caused some thirty years ago, and today is in a human rights limbo. Other countries are experiencing setbacks due to collapsed rule of law, including Sri Lanka and Bangladesh. Torture is deep-rooted and widespread in many countries throughout the region. Other countries are on difficult and uncertain paths to reform. Meanwhile, the United States is having an increasingly negative effect on the prospect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sia.

All of these are issues with which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has considerable experience and familiarity, and I shall speak to each of them in turn. However, I should begin by acknowledging that North Korea stands out as suffering from the most exceptionally dismal human rights situation in Asia at this time. That said, you in this country are informed about conditions there, and I prefer to leave discussion on North Korea to persons more knowledgeable than I am. Therefore, I will concentrate on other parts of the region.

NEPAL

So let's begin with Nepal, on which I wish to talk in some detail. This week over one thousand Nepalese lawyers came on to the streets to demand an end to the one-man rule imposed by the king when he took over in February. It is remarkable to see lawyers protest in such numbers. However, in Nepal the system of government and justice has collapsed and lawyers there have perhaps found that there is no place left for them other than the streets. Certainly they can do nothing in the courtroom, which has been crippled by the military. In fact, the judiciary has been so corrupted that even the chief justice of Nepal has been forced to speak out in favour of the dictatorship and say that democracy has failed.

Terrible repression followed the king's takeover in Nepal last February. Mobs were used to burn, loot and kill. Leading dissidents were arrested and some were released only recently, after heavy pressure at home and abroad. Journalists and students were also arrested. Most publications have been crushed under the weight of severe censorship. Surveillance of all or any opponents to the regime has continued unabated. In recent weeks soldiers and police have visited human rights organisations and other groups, seeking details of their sources of information and about those campaigning against the government.

The king of Nepal has also recently dissolved the country'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is was the only national agency that had still been monitoring human rights in Nepal. It has documented over one thousand disappearances in recent years. The actual number of cases is much higher. The commission had also acknowledged that torture of innocent civilians is the norm. But the commission has now been taken over by a group of persons nominated by the king through a royal decree. Actually, the commissioners should have been appointed through a parliamentary process with checks and balances. The king has overridden that requirement. The new commission will be under his control, and that means it will also be under control of the military. Complaints to the commission will go directly to army officers. Lives of victims and their defenders will be endangered. Human rights groups will be in very grave danger. Records of earlier complaints may also be handed to the military.

The king gave the impression that he took power to deal with the growing Maoist insurgency in Nepal; however, he has not come up with any plan for political settlement. In fact, the takeover has only made things worse, because none of the political leaders and parties has a role to play in negotiations. There is now no possibility of a settlement through democratic process. The two sides in any negotiations can only be the king, representing absolute power, and the Maoists, representing power on the ground in over 60 per cent of the countr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no possibility of a negotiated outcome.

After his takeover, the king had also promised to establish a government within 90 days, and restore the democratic process to Nepal. These promises were given to concerned countries outside, including Indi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o UN agencies.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se promises will be realised, and the trend is in the opposite direction.

So people in Nepal are now facing military rule under royal sanction. Fragile democratic institutions introduced only 15 years ago when the absolute monarchy was first abolished are being uprooted. People who were beginning to think democratically are now thinking only of survival. The people may survive, but the institutions are unlikely to. They are targeted for destruction, and this is why we can see even lawyers taking to the streets in protest.

No one should underestimate the grave danger now facing Nepal. The longer the situation remains unresolved the greater the likelihood of further confrontation. Long-standing problems, including overwhelming poverty, deep discrimination and trafficking in persons are likely to become much worse. The economy is on the brink of collapse. If it fails altogether, extreme degradation and famine could follow.

There is not much time left to find a solution to what is happening in Nepal. At the 61st Session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is year a resolution was passed that led to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establish a mission in Nepal. The mission has begun its work, and received some money for this purpose. It is expected to have about 50 overseas staff. Perhaps this is the only ray of hope that remains in an extremely dismal situation.

The UN human rights mission in Nepal is an opportunity for Korean involvement. At this stage we desperately need Asia-wide discussion and action on what is happening in Nepal. Koreans should play a lead role by showing greater commitment to the defenc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re, where they are in greatest peril.

BURMA

I now want to turn briefly to Burma, and then Cambodia. It is heartening to note that Burma is becoming a concern in Korea, and rightly so. The military regime there has at no point shown any genuine intent in bringing the country closer towards reform. In fact, democratic process in Burma is suppressed now more than ever before, and poverty is endemic. Hunger and repression have stalked Burma together for some years now, and have been well documented. Little wonder that millions of Burmese have gone to Thailand and further afield in search of badly paid and dangerous jobs.

Unfortunately, Burma is yet to elicit a strong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ain, it becomes the duty of a democratic country like Korea, particularly where it has economic interests, to bring the real situation in Burma into sharper focus. The international lobby on Burma in particular has been weak because it has been almost completely based in the countrie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It is clear that if there is to be change in Burma, people living closer by must pay it more attention.

CAMBODIA

The situation in Cambodia is also still very bleak. Despite the UN role in the country, culminating in the May 1993 election, Cambodia subsists in poverty under a clique of extremely powerful and wealthy former military leaders. No effective democratic activity is permitted. The opposition leader is in exile and some of his colleagues are facing trial in courts that are completely controlled by the executive. No institutional development has taken place within the last twelve years. Political leaders have crippled Cambodia's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and their corrupt subordinates.

Cambodia is an example of how once a country is dragged into limbo by war, misguided political revolution and superpower politics it is not likely to find its way back without substantial and sustained international support. After the Second World War, both Japan and Germany were resurrected and reintegrated into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is manner. However, in today's world order, assistance is limited, sporadic and short-term. This is no assistance at all. Other Asian countries and peoples owe a special obligation to the Cambodian people to keep sustained international attention on their unending plight.

SRI LANKA

I wish to draw special attention to the effect on human rights in Asia of collapsed institutions for the rule of law--that is, the police, prosecution and judiciary--with particular reference to Sri Lanka and Bangladesh.

One consequence of collapsed rule of law is that a country is incapable of dealing with internal conflict in a coherent manner. This is the story of Sri Lanka. Into the 1960s, Sri Lanka was relatively prosperous and peaceful. It had some functioning democratic institutions, despite many defects. But the early 1970s saw several periods of extreme violence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Government forces attempting to quell a minor insurgency in 1971 killed at least 10,000 youths, most of them Sinhalese. This is a rarely acknowledged fact. It is also rarely told that the security forces forcibly disappeared at least 30,000 people in the south of the country from 1987 to 1990, in response to an insurgent group called the JVP, which also engaged in barbarous killings. In the north and east the army attempted for several years to wipe out an armed rebellion by militant

Tamil groups, which were finally spearheaded by the LTTE. However, the military onslaught destroyed the countryside and displace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It also brought democratic and normal life in the country to a standstill. Despite a ceasefire reached three years ago, life in the country remains precarious.

As democratic and judicial institutions in Sri Lanka have been wantonly neglected, the government is now unable to solve the problems of its own doing. The intensity and incidence of violence are growing daily. Murder is a trifle. Robbery is mundane. Middle class advocates have begun openly calling for extrajudicial killings of alleged criminals. In fact, such killings are going on already. Meanwhile,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receive death threats and live in great fear. Persons in the south with suspected links to the LTTE are killed. The same goes for those in the north and east suspected of having government connections. Social life is paralysed by violence, and the effects spill over into seemingly unrelated exchanges. For instance, medical negligence causing death or grievous injury is more common, and the negligent doctors react with arrogance and inhumanity towards their unwitting victims. Such incidents are indicative of a kind of social breakdown that has not yet been properly understood or discussed.

BANGLADESH

The situation of Bangladesh is in some ways similar to that in Sri Lanka. People there live in fear of extrajudicial killings that are disguised as legitimate acts of policing. Journalists and opposition party members are frequent targets. The police are utterly corrupt and politicised. Close observers state that almost 70 per cent of persons arrested in Bangladesh are poor and innocent. In many of these cases the police have taken bribes from the actual perpetrators to substitute them for someone else. No independent bodies exist to investigate security forces' corruption or wrongdoing. There is no effective means for asserting legal rights before authoritative judicial bodies. And agai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regionally or internationally.

TORTURE

One major problem affecting most countries in the region is the widespread use of torture. In most Asian countries torture is routinely used in police investigations. In fact, it is the most common form of criminal investigation. Governments and police consider it

both legitimate and necessary. Many lawyers share this view, or at least decline to resist it. Even where there are laws against torture and stated commitments to eliminate it, these have little meaning. Extreme types of torture often cause death. Innocent victims who survive are sent to jail on the basis of forced confessions.

The police enjoy unchecked authority in most Asian countries for the large part because of their use of torture. Few governments or political parties dare to challenge this position, and most take advantage of it. Widespread violence and abuse of power contaminate elections and politicking.

Torture is the foremost issue that democra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should address in order to achieve democracy in Asia. It is central to achieving genuine democracy and stability, as torture and its attendant abuses are at the root of fears that people have about participating in day-to-day affairs of their societies.

One country that has become embroiled in concerns about the use of torture in recent times is the United States. It is a sad fact that the US and some of its western allies have had an increasingly negative effect on popular aspiration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sia. The US has steadily undermined fundamental notions of universal human rights, including the absolute prohibition on torture, which have been developed through centuries of hard work. It has trivialised international law, carelessly used violence on the pretext of combating terrorism, and attempted to secure a place for itself separate from the rest of the world. Senior US officials now have human rights organisations in their sights, blatantly attacking Amnesty International because of a report describing the worsening human rights practices of the US. The deputy president went so far as to call Amnesty an al-Qaeda propaganda front. Such language reminds us of the decades of abuse human rights groups have experienced around the world from military dictatorships and tin-pot despots. That the US has now resorted to the same behaviour is a sad indictment to say the least.

All of these actions pose enormous threats to further growth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sia. As the erstwhile promoters of certain values now in practice mock them, hearty laughter can be heard from among the enemi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sia. The direct consequence is an increase in killings of, and threats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and democracy promoters in Asia. This increasingly destructive rol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must be seriously reviewed and rebutted in order that it do a better job of defend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other countries, as well as at home.

Before closing, it should be recognised that there has been some progress during recent decades in countries that are shifting from a communist into a post-communist era. For instance, there have been legitimate attempts at legal reforms aimed at eliminating repressive behaviour in some places. However, old bureaucratic practices and party controls are major obstacles to popular participation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institutions. If we look at these states in terms of their police, prosecution and judiciaries, we see similar problems to those found in many other Asian countries. Perhaps the time has arrived to treat these as common problems and to look for solutions together.

What lessons can be learned from all this? It seems very clear that above all else we in Asia must become the spokespersons of our problems. If we do not talk, no one else will. We need to break our own silence if we wish to break that of the world. What I mean by this is that we need to break that silence constantly, by sharing information daily, not only through occasional gatherings and events. All of this is made possible through the Internet. In fact,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has seen enormous possibilities to create routine discussion on human rights issues in Asia, and I encourage you to do the same. There is only one way to uphold human rights and democracy: speak loudly and often. If we do so, perhaps one day soon the whole of Asia will be able to experience some of the changes that Korea is going through now.